



제26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훈장·대통령·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한 출판인들

제26회 책의날 기념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

유국현 (주)교문사 회장 옥관문화훈장 박종도 사장 인쇄부문 유공자상 수상

제26회 책의 날 기념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시상식이 11월 30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책의 날’은 팔만대장경이 나온 10월 11일을 기념해 정한 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 진흥에 공이 큰 출판인에게 훈장,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된 제26회 책의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책의 날을 받드는 글 낭독, 기념사, 축사, 문화훈장, 대통령·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 기획편집, 관리, 영업 등 한국출판공로상, 인쇄, 제책 등 관련업계 출판 유공자상, 모범장서가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고문,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석범 한국장서가협회 회장, 김재복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태경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이길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 등 많은 출판인이 참석했다.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때론 한 권의 책 속에서 만난 소중한 글귀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책 속에서 만난 수많은 위인들의 가르침이 삶의 지침이 되듯, 우리의 삶 한켠에 들어온 책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마음이 가뭇아야 할 방

향을 제시해 준다. 이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키워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한 양서들이 출판인에 의해 만들어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며 “지금 출판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 출판계가 연대하여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정가제 확립, 출판진흥기금 조성 등 출판문화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일들은 여러 출판인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만 결실을 볼 수 있기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출판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환 차관은 축사에서 “오늘 출판유공자상을 수상하는 모든 분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출판인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보고이자 창이다. 지금 출판계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책이 우리의 미래이듯이 출판인의 열정과 헌신이 출판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리는 책의 가없는 뜻을 알리고 크나큰 고마움을 기리도록 우리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이 나온 시월 열하룻날을 책의 날로 받든다. ◑◑



기념사를 하는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축사를 하는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옥관문화훈장 유국현 교문사 회장
국무총리 표창 부길만 교수 수상**

유국현 (주)교문사 회장이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나중렬 향문사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부길만 동원대학교 교수, 홍기원 도서출판 민속원 대표, 박철용 양서원 대표, 지현구 태학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유국현 (주)교문사 회장은 국민의 교양 함양과 전문지식 보급을 위해 고전문학 발굴 및 민속학, 인류학 등의 인문학서적과 사회과학 분야의 양서 발간으로 출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도 사장 인쇄부분 유공자상 수상

‘2012 관련업계 출판유공자상’은 인쇄부문에서 박종도 유일문화 대표이사가, 제책부문에서 김경래 두영바인텍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박종도 대표이사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20여 년간 출판·인쇄업을 경영해왔다. 어려운 작업 환경과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라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2 모범장서가상’ 시상식에서는 8600권을 소장한 정동수씨가 대한출판문화협회장상을, 4300여권을 소장한 박춘기씨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16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 출판상 심사에서 ‘2012 APPA 출판상’에 선정된 한길사의 ‘장가르’, 사계절의 ‘경극이 사라진 날’, 한국비피의 ‘시진평’에 대한 상장과 상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

책의 날을 받드는 글

책은 마음의 발을 갈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슬기의 높이를 돋군다. 우리는 책으로 좁은 울을 넘어서 오랜 때와 먼 곳을 보고 뛰어난 삶과 만나며 올바른 길을 찾는다.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우리의 것을 지키며 아름다움을 가꾸어 온 것은 책을 사랑하여 그 가르침을 몸으로 살아온 얼을 이어받음으로써이며, 우리나라가 이제 밝은 빛을 좇아 먼 앞날로 바르게 나아갈 것을 믿음은 우리 모두 책에 대한 바람을 탄탄히 다지고 그 보람을 옮겨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책의 가없는 뜻을 알리고 크나큰 고마움을 기리도록 우리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이 나온 시월 열하룻날을 책의 날로 받든다.



정부포상 수상자들



인쇄부분 유공자상을 수상하는 유일문화 박종도 사장